

## 哲學과 教養教育

金 麗 壽

(서울大 副教授)

## I.

대학은 사회를 초월하는 상아탑적 존재가 아니다. 대학은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그 사회의 발전에 의미와 목표를 새로이 제시하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의 요청과 수요에 적실하게 반응하면서, 학문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요구는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II.

중세 서양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대학은 그 사회의 최고급 지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지적 교양을 공급하는 교수와 연구를 이념으로 하는 기관이었다. 이들 소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은 학부과정에서는 폭넓은 교양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원과정에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편으로는 학문활동에 제승해 나갈 수 있는 학자를 길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 법학, 신학등의 특수분야의 전문인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해 왔다.

철학은 이러한 고전적 대학에 있어서의 교양교육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60년대 초반까지도 자연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들이 철학대학(Philosophische Fakultät)에 속해 있었던 독일 대학제도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철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분야 이면서도 모든 또는 대부분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흔쾌히 합의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서양의 학문사를 보면 비교적 최근까지, 정확히 말해서 17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인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철학은 어떤 특정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분야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이론적 탐구를 포괄하는 이른바 학문의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철학이란 논리학, 윤리학, 형이상학 뿐만 아니라, 정치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오늘날의 사회과학, 그리고 물리학이나 생물학과 같은 오늘날의 자연과학분야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 철학의 이러한 포괄적 자기이해는 자연과학이 융기하는 17세기나 18세기까지도 유지되어,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까지도 철학의 한 영역, 즉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으로 이해되어 왔다.

철학의 역사를 흔히 분가의 역사라고도 한다. 철학으로부터 자연과학을 분가시킨 것은 필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현상의 영역과, 자유의지의 영역인 정신현상을 이론적으로 분리하고 정

신과학(Geisteswissenschaft)으로서의 축소된 철학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 칸트와 그의 후예들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대학의 철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Naturwissenschaftliche Fakultät)으로의 구분은 이러한 철학의 축소된 자기 이해의 제도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가의 역사로서의 철학의 역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우선 정신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경험과학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여러 학문분야들이 경험과학화하면서, 철학은 본격적인 정체위기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자연과학을 분가시키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전체를 철학의 고유한 영역으로 확보함으로써 그 포괄적 성격을 정립하고자 했던 칸트와 그 후예들의 노력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참히 붕괴되었으며, 모든 이론적 탐구로 포괄하는 지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이름으로 불리우던 철학은 자연과학도 사회과학도 아닌 정체불명의 학문 영역으로, 철학하는 사람밖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자체 이외의 아무런 목적도 없는 분화되고 전문화된 많은 개별학문 중의 하나로 전락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의 정체위기는 대학교육의 성격상의 변질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출현과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인이 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학은 이들을 길러내는 일을 떠맡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는 대중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교육내용 및 제도적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 고도 산업사회는 보다 고도화된 전문적 기능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위에서 살피 본 학문의 분화 및 전문화의 토대 위에서만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보다 촉진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는 대학이념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진통기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엘리트교육과 대중교육 사이의 갈등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은 아직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철학교육의 비중은 급격하

게 감소되어, 철학은 많은 교과목 중 또 다른 하나의 교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서구 여러 나라중 고전적 대학이념에 가장 집착했었기 때문에 60년대의 진통 또한 가장 격심했던 독일의 경우, 수없이 많은 개혁시도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철학대학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 III.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고전적 대학과 대중적 대학의 상충되는 두 이념의 불안한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대학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은 대중적 전문직업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을 포함하는 대부분 대학인들의 머리 속에는 고전적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의 이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한국 대학의 이러한 이중성은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폭넓은 지적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짜여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짜여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대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이념적 반성이 결여된 채로 이 두가지 목표들이 불안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대학교육의 이념적 혼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학과목인 듯하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철학개론」에는 대학 교양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가 부여되어 왔다. 철학은 비판정신을 함양시킨다, 철학은 여러 학문에 기초를 제공한다, 또는 철학은 인간을 주제로 한다는 매우 막연한 근거에서 교양과정에 있어서의 철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전공과정으로서의 철학은 고유의 전문언어로 구성된 다른 학문분야들로부터 격리된 채 여러 학문분야 중의 또 다른 한 분야로 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핵심적 부분으로서의 철학은 막연하고도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되어, 많은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논리적이고 평가적 사유능력의 함양보다는 오히려 혼돈

을 조성하는 결과를 종종 초래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공과정으로서의 철학교육도 역시 논리적 사고능력이나 전체적 조망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대신에 철학사 중심의 교육으로서, 균형있고 체계있는 교육을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양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던 철학개론이 실험대학제도의 실시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많은 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격하된 것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문을 중시하는 일부대학에서마저도 철학과가 점차 영세학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Ⅳ.

그러나 고도 산업화하고 있는 오늘날, 철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대학이 사회의 요청과 수요에 적실하게 반응하면서, 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명제가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학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철학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철학의 재정립은 현대사회에 대한 조명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규명의 상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과학과 과학기술의 보다 포괄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과학은 지식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보다 풍요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다 많고, 보다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동원될 것이다. 특히 인간생활을 보다 광범하게 지배하게 될 인공두뇌, 사회공학 및 유전공학의 포괄적인 실용화는 우리 생활의 전역에 걸쳐 많은 수정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예측하고, 사회적 우선순위를 적절히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유의 보편화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은, 우리가 일차적으

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나 영향보다는, 개발 또는 실용화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2차적 또는 3차적 영향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로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엄밀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냉철한 분석능력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혼련된 상상력을 요구한다. 논리학은 전통적으로 넓은 의미의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논리적 사고능력은 모든 지적 행위에 있어서 바탕이 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철학은 전통적으로 종합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종합적 작업에서 필요하게 되는 지적 능력은 혼련된 조직적 상상력이다. 철학은 이것을 직관 또는 통찰이란 이름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포괄적 조망능력은 과연 가능한가? 분열된 지식의 시대에 대한 현대철학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다 대규모화하고 복잡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는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가지 형태의 정보홍수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정보의 과잉공급은 사회의 전반적 복잡화 현상을 보다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의 머리 속에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한정된 것이고, 이러한 기능은 인공두뇌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갓 기술과 전문지식의 소유자로서의 인간보다는 비판과 종합의 능력, 즉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요구가 보다 절실하게 요청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지배하면 할수록 그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 측면도 보다 현저하게 노출될 것이고, 따라서 과학기술문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곧 가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근대화 과정이 추진되

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국 전통의 재발견 및 재평가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문명을 토대로한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직적 상상력과 함께, 인간의 행위와 여러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에 필요한 지적능력을 요구한다. 철학의 여러 문제들은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세계 속에서의 그의 위치를 결정하는 원칙들, 즉 우리가 무엇을 선하고 무엇을 악한 것으로 보느냐의 준거를 제시하는 가치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학문들은 가치판단의 준거에 대한 문제는 그 고유한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배제하고 있다.

## V.

위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으로 철학은 인간의 모든 이론적 탐구행위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구성했던 모든 관심영역들이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분가해 나간 오늘날, 철학의 이러한 포괄성은 쓸모 없고 설득력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오늘날의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개별학문들이 창출하는 지식들을 습득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 않다.

현대철학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포괄적 학문의 의미를 새로이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학문의 분화현상은 철학에 대하여 새로운 자기정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현대철학, 특히 분석철학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했다. 철학은 어느 실재하는 대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실재를 탐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개별학문, 즉 일차학문(First-order discipline)들의 논리적, 개념적 구조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고차학문(Second-order discipline)이다. 철학은 실재에 관한 일상적 진술들과 과학적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포괄

적으로 조망하고 하나의 전체적 모습을 제시해 준다. 논리적, 개념적 분석작업을 통한 지식의 통합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분열의 시대에 있어서 철학의 참된 포괄성이 아닌가 싶다.

## VI.

오늘날 대학이 그에게 부여된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한갓 전문적 지식인력과 기술인력의 배양에 앞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성인을 길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는 그가 전공하는 분야의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조직적 상상력,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분석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 인간행위와 사회현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가치판단능력을 더불어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철학은 개별학문들이 제시하는 진술체제들을 논리적, 개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진술체제들이 표현하는 인간, 사회, 그리고 세계에 대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하나의 전체상을 제시한다.

오늘날 대학이 그 분열적 성격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이 통합된 대학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정립된 철학이 대학교육의 핵심적 위치로 복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복귀가 물론 철학개론의 교양필수과목으로의 환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모든 학생들이 4년간의 학부과정을 통해서 조직적 상상력, 치밀한 분석능력, 그리고 평가적 사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짜여진 폭넓은 교양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필자는 安炳周教授와 공동으로 대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철학교육과정을 제안했고(大學教育課程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 哲學科編, 1979,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李明賢教授와 공동으로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철학교육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제안한 바(韓國哲學教育의 現況分析 및 커리큘럼研究, 1981, UNESCO 韓國委員會)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생략하기로 한다.>